

## “견고한 성차별은 영유아 콘텐츠부터 시작됩니다”

### 성평등 그림책 큐레이션 서비스 ‘우따따’ 딱따구리 유지은 대표

글 김지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jihyunsports@mtn.co.kr 사진 성혜련 작가

“신데렐라, 부디 나의 신부가 돼 주세요!”  
“결혼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왕자님의 우주선 정비공이 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다. 딱따구리의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우따따’에서 소개하는 데보라 언더우드의 ‘별나라의 신데렐라(2015년 발간)’는 기존 신데렐라 이야기와 다르다. ‘별나라의 신데렐라’의 배경은 우주 공간이고, 신데렐라는 우주선 정비공이란 꿈을 갖고 있다. 신데렐라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우주복을 입고, 유리 구두 대신 정비에 필요한 렌치를 들고 다닌다. 신데렐라와 왕자의 만남은 왕자의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뤄진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왕자를 구하고, 우주선도 직접 고쳐준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떨어뜨리고 간 렌치를 들고 신데렐라를 찾는다.

#### ‘우따따’의 시작

‘우따따’는 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도서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딱따구리 유지은 대표를 만나 ‘우따따’ 서비스의 시작과 방향,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11월 유지은 대표는 조카와 어린이 만화를 보다가 충격에 빠졌다. 인기 만화 ‘뽀로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여럿 발견했기 때문이다. 뽀로로의 여성 캐릭터인 ‘루피’는 집안일을 좋아하며, 남성 캐릭터인 뽀로로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루피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남성 캐릭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

유 대표는 아이들이 이런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만화를 그대로 습득하며 성장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고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유아 때부터 올바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유지은 대표는 아이들에게 ‘사회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그림책을 통해 교육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 대표는 유아를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는 “본인부터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지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을 고르는 17가지 기준

성평등 관련 도서를 큐레이션 하는 '우따따' 서비스의 핵심은 올바른 성평등 개념이 들어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딱따구리가 만든 17가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20점을 넘으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20점을 넘겨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체 가이드라인 중에서 하나라도 최저점(-3점)을 기록하는 경우다. 17개 가이드라인 모두가 최저점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은 △여성 캐릭터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등장 인물의 성비가 고른가 △대사가 없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가 △양육과 집안일을 부모가 같이 하는가 △책의 내용이 성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내용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1985년 등장한 엘리스 벡델의 '벡델 테스트'를 참고해 딱따구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벡

델 테스트는 영화 산업에서 여성 인물이 영화에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 포함할 것 △여성 인물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여성 인물이 남성에 관한 것 외에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이란 요건을 만든 테스트다.

유지은 대표는 "이렇게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책을 선정하다보니 매달 이를 충족하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들어 올바른 성평등 개념이 담긴 책이 나오기 시작해, 예전에 발행된 책은 대부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올바른 성평등 개념이 담긴 책이 많아, 외국 책을 서비스 대상으로 정할 경우 번역이라는 문제점에 부딪힌다. 유지은 대표는 "외국에서 유아용 페미니즘 서적이 많이 나와 직접 외국 단체들과 접촉해서 원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자주 접촉하는 업체는 영국의 '렛토이비토이'와 '레터 박스'다. 또 그는 "직접 원문을 가져와 번역해 출판하고 싶지만 초기 비용이 한 권당 8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은 대표는 아이들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선정해 전달하고 있다. 또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유지은 대표는 올해 2월,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베타테스터로 30명을 모집했다. 유 대표는 "진행하려는 사업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했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베타테스터를 진행했다"며 "베타테스터가 제공한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의견 덕분에 서비스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왜 여자 캐릭터만 머리카락이 긴 것인가 같은 세심한 의견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자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모습으로 그리면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 캐릭터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동일한 머리카락 길이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우따따' 서비스는 올해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이들에게 전달할 책을 선정하고 책과 관련된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든다. '우따따'는 아이들이 서비스를 통해 추천 받은 책의 내용과 성평등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책마다 학습 자료를 만들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학습 자료는 어떤 형식과 패턴이 있는지', '성평등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등을 추가로 공부했다. 유 대표는 "학습

자료를 만드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선 성평등 의식

유지은 대표는 올해 7월 해외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더 공부하기 위해 영국과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두 달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유럽 내 성평등 의식이 아주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 대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성평등 의식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웨덴에는 세계 최초로 성평등을 가르치기 시작한 유치원으로 유명한 '이갈리아 유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 개원한 이갈리아 유치원은 1998년 스웨덴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배경으로 생겨났다.

직접 이갈리아 유치원을 방문한 유지은 대표는 유치원에서 '남자 아이', '여자 아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언어에서부터 행동까지 세심하게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갈리아 유치원 아이들은 꾸준히 성폭력 방지 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부모에게도 성폭력과 성평등에 관해 교육한다.

유 대표는 그림책과 장난감에 '성별 지장'을 없앤 영국

유지은 대표가 직접 만든 학습자료  
유 대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안도 만들 계획이다.



의 학부모 단체인 '렛 토이 비 토이 (Let Toy Be Toy)', 남성들이 직접 남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는 스웨덴 단체인 '맨(MANN)', 여자가 이공계열 회사, 남자가 인문과 돌봄 노동 계열 회사를 방문해 멘토제를 운영하는 독일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인 '걸스데이 앤 보

이스데이(Girls' day & Boys' day) 등 여러 성평등 관련 단체를 방문해 해외의 성평등 개념을 다양하게 익혔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우따따'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부모와 부모가 될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따따'의 이용자 수는 서비스가 시작된 6월 50명, 7월 60명, 8월 8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유지은 대표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다. 유 대표는 "아이들만큼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들도 올바른 성평등 개념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커뮤니티를 만들어 고민과 정보를 나누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제점을 뽑아 그림책을 만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안도 만들 계획이다. 유지은 대표는 "아이들을 비롯해 사회가 올바른 성평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유지은 대표는 성인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부모가 될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왜 내 아이한테 필요한지' 깊게 이해하는 분은 드뭅니다.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현 사회에 만연한 어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자 아이라고, 남자 아이라고 선택에서 차별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는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미래를 제약하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관념부터 없애야 합니다.

또 소중한 아이들에게 한 쪽 세상만을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엄연하게 두 성별이 존재하는 세상인데, 한 쪽 성별에만 치우친 편견을 배우고 자라면 좋지 않습니다. 남자 아이도 슬플 때 평평 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고, 여자 아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별과 관련 없이 아이들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차이가 아니라 차별부터 배우고, 평등이 아니라 편견부터 배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의 편견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유아 콘텐츠를 가려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차별이 영유아 콘텐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건강한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저 없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성장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

# WITH KOCCA

키네틱 아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이지 위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품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한국 대표 다큐멘터리 제작사 김진혁공작소,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프트젠을 소개한다.